

아동학대 사회 감시망 강화 '목소리'

신고 112와 통합 후 매년 증가... 2014년 62건에서 2015년 95건으로

올해로 94번째 어린이날을 맞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와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 아동학대 근절과 학대가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아동학대 신고가 112건과 통합된 후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

다. 실제 지난 2014년 62건에 그쳤던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95건으로 68%가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3월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24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건 안팎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 요인과 육아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육아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한 교육이 뒷받침되면 아동학대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육아에 대한 전문적 교육기관의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면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비신고자의 신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늘어날수록 사회적 감시망도 튼튼해져 아동학대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도 있지만 일회성 아동학대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확충과 강화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

으로는 "경제적 요인 같은 아동학대 발생 요인은 단일기관이 나서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방보다는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아동학대 피해 발생이 줄어들다 보면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9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300만원의 벌금을 500만원으로 올렸지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기준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학대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어린이 보호에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진수 기자



3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999년 완주군에서 발생한 '심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건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유가족, 재심서 진상규명 촉구

17년 전 완주군 삼례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을 앞두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임모(37)씨와 유가족은 3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년만에 진범이 나타나 범죄를 자백하고 사죄하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밝혀내고 진범을 가

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실한 수사로 살인범을 조작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경찰과 검찰의 변명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법원이 재심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6)씨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나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직후 임씨 등 3명을 3인조 강도로 특정해 검거했고, 이들은 강도치사,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강(36)씨와 최(37)씨는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임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달 뒤 부안지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자 3명을 모두 불집아 자백을 받았지만, 전주지검에서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용주 기자

고속도 음주 난폭운전 50대 검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 난폭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3일 자정께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57Km 지점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난폭운전을 한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무면허 상태로 렌트한 소나타 차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한씨는 합평휴게소에서 합평톨게이트까지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해 고속도로순찰대가 한시를 검거한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음주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30대 '덜미'

가짜 진단서로 산재보험금을 받아 갹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산재보험금 4400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주 한 미곡처리장에 근무 "쌀을 운반하다 적재 깔판이 손에 떨어져 산재보험을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 산재보험금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김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고도 병원에서 '장애'가 우려되는 심각한 부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으로'

콘크리트 제거 등 전주생태동물원 조성 착수

생태동물원으로 다시 태어난 전주동물원은 동물들이 인간과 자연을 벗 삼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동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78년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전체 면적 12만6000㎡ 규모의 부지로 경기도 이남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전주동물원은 지난 2011년 66만, 2012년 71만, 2013년 80만명 등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장 이래 전주 시민은 물론 충청·전라권을 대표하는 동물원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동물복지와 동물행동학을 반영한 사육시설 운영보다는 관리의 편리성과 놀이시설 등 유희적인 측면만 강조된 딱딱한 관리로 동물들이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려왔다.

이에 전주시는 콘크리트로 된 동물사를 걷어내는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전주동물원을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명소로 만들어 갈 '전주생태동물원 조성'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전주동물원은 동물이 단순히 전시되는 일반동물원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이자 생태·교육적 기능을 갖추고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치유

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동물원 대표 사업은 동물원 내 인공시설물인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고 풀과 나무, 꽃, 과실류 등을 심어 각각의 동물들의 서식지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또, 공간 철장에 갇힌 동물들을 우리 밖으로 꺼내 초원과 숲 등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전주생태동물원의 대표동물은 전주천과 삼천 등에서 서식하는 수달로 결정됐다. 또한 현재 어지럽게 구획된 전주동물원의 관람동선을 개편하고, 동물 서식공간을 주제별로 10개로 묶어 관람객들이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10개 구역은 △토종동물의 숲 △초식동물의 숲 △초원의 숲(아시아, 아프리카) △중보전센터(시베리아 호랑이) △새들의 숲 △잔디의 숲 △맹수의 숲 △아쿠아리움 △에코돔 △호주의 숲 등이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전시공간과 최대한 접근도 허용 휴식·조망공간, 관찰데크 등 다양한 관람방법 및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기존 동물사와 방사장은 해당 동물의 서식지의 형태적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며, 동물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관람 시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경관보입형 전시기법도 도입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5일 동물원 주변 특별 교통대책 추진

경찰과 합동으로 탄력적 운영

전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 주변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제94회 어린이날인 오는 5일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주동물원 주변에 대해 특별 교통대책을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정체가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동물원과 주변 도로의 원활한 차량이동 및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원이 개장하는 오전 8시를 전후로 경찰과 합동으로 주차장 수용상황 및 교통흐름의 변화에 맞게 차량통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동물원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시점부터 사대부고 사거리, 연화마을

입구 삼거리, 북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임시주차장인 전북대병원과 우이중학교, 종합경기장 등으로 차량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무료로 운영되는 임시주차장은 종합경기장과 덕진초교, 전라중학교, 전북대병원, 우이중학교, 소리문화의 전당, 어린이회관, 연화마을 삼거리 주차장 등 총 10개소(주차공간 6000여대)이다.

특히 시는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날 시내버스 4대를 증차한 총 1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셔틀버스 10대를 배치,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운행할 방침이다. 셔틀버스 탑승 장소는 종합경기장(수당문), 전북대병원(본관 앞), 우이중학교(교문 앞), 어린이회관(입구) 모두 네 곳이다. /김영재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